

신작 시집 《포옹》 출간한 정호승 시인 사유의 빈자리가 주는 올림의 미학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한쪽 시력을 잃은 아버지/내가 무심코 식탁 위에 놓아둔/까만 나팔
꽃 씨를/환약인 줄 알고 드셨다/아침마다 창가에/나팔꽃으로 피어나/
자꾸 웃으시는 아버지-(나팔꽃)

정호승 시인의 서정은 '연민'을 그 기저로 한다. 1973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등의 시집을 통해 슬프고 따뜻한 애정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 왔다. 최근 출간된 9번째 시집 《포옹》 역시 존재에 대한 이왕의 애정 어린 시선은 유지하면서 삶과 죽음을 향한 시인의 한층 깊어진 사유를 느낄 수 있다.

여름을 보내는 가랑비가 내리던 9월의 어느 날, 광화문 한 카페에서 만난 시인은 “이번 시집에는 이전에 비해, 보다 더 개인적 삶의 편린들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연민은 제가 시를 발견하는 바탕이라 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시에 개인의 삶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즘은 나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비추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4년 만에 출간된 신작 시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소멸해가는 육체'에 대한 비애다. 그간 그의 시에서 모성이나 여성성은 자주 등장했지만 이번 시집에서는 그의 늙은 아버지에 관한 시가 여러 편 보인다. “사람이 늙은 뒤에 또다시 늙는다는 것”은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이 거쳐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소멸의 과정이다.

“미수(米壽)가 되신 아버지를 대하면서 육체적 늙음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 육체의 나이들이 얼마나 슬픈 것인가 하는 것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의 늙음을 통해 결국 저와 인간 전체의 육체적 소멸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의 시에는 맑고 아름다운 삶을 지향하는 데서 오는 깊은 고뇌와 짙은 아픔이 있다. 이것이 정호승 시의 감동의 원천”이라는 신경림 시인의 추천사처럼 시집에 담긴 66편의 시에는 삶의 내면에 천착한 시인의 사유가 주는 깊고 넓은 올림이 있다. 사유의 빈자리가 가지는 올림. 그것은 도공의 마음으로 한편한편 빚어낸 시만이 가질 수 있는 여백의 미학이다.

“도공이 사발을 만들 때 형태를 만드는 것 같지만 실은 그릇의 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시집이라는 사발 하나를 만든 셈입니다. 이 사발에 빈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행여 아무것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그의 시가 만드는 여백에 독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사유를 담아낼 수 있기에 시인과 독자는 서로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의 시가 등단 35년이 넘도록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중견시인인 그가 느끼는 한국시와 독자의 소통은 과거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각에 존재하는 한국시에 대한 비판적 전망에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시는 영혼을 위한 ‘식량’이기 때문에 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등단했던 1970년대 초와 비교하면 지금은 시인과 독자층 모두 확장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후배 시인들이 하는 다양한 시적 실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험과 모험 없이는 발전이 없으니까요. 다만 시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시집의 표제작 〈포옹〉은 전남 여수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부부 화석 사진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사랑에 관한 시인 특유의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부드러운 살이 아닌 딱딱한 뼈로 부둥켜안고 몇 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이 연인들에게 시인은 “꽤만 남은 알몸을 드러내는 일”의 부끄러움과 “포옹”이란 행위의 따뜻함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1세기의 우리는 서로 어떤 포옹을 하고 있는가. 신이 우리에게 두 팔을 준 것은 서로 포옹하고 화해 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우리는 과연 그런 포옹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이주연**

